

##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정 남 운<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애를 측정하는 검사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한국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그 요인구조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00명의 대학생에게 자기애적 성격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들의 사분상관(tetrachoric correlation) 행렬을 구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4요인이 추출되었다. NPI의 4요인은 각각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으로 명명되었다. 1,200명의 피험자 중 496명에게는 자존감 척도 및 아이젠크(Eysenck) 성격검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 검사들과 NPI의 각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NPI의 요인들 중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은 다른 요인들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에 반해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자존감 척도와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에서 다른 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에는 부적용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상관이 더 높아졌고, 자존감과는 정적인 상관 대신 부적인 상관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자기애, 자기애적 성격검사, 아이젠크 성격검사, 자존감.

---

\*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가톨릭대 조성호 교수와 서울대병원 한수정 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정 남 운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FAX : 032-345-5189 / E-mail : woon@songsim.cuk.ac.kr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가 발표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자기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도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검사는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 이하 NPI로 약칭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기애에 관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가 이 NPI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계령, 1997; 김윤주, 1991; 김은영, 1996; 김지연, 1998; 박정민, 1998; 한수정, 1999). 이 검사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의 진단 기준을 반영하는 진술문들 중에서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들만을 선정하여 만든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다른 검사의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NPI와 비슷하게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검사들로는 Wink와 Gough(1990)의 CPI 및 MMPI 자기애 척도, Raskin과 Novacek(1989)의 MMPI 자기애 척도, Morey, Waugh와 Blasfield(1985)의 MMPI 자기애 척도 등이 있다. 이들 척도들은 서로 .50~.80의 상관을 보이며 관찰자가 평정한 자기애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Wink, 1995).

NPI 및 그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검사들은 외현적 자기애, 즉 거대 자기 표상 및 자기과시의 경향성을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Wink, 1991, 1995). NPI는 DSM-III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검사가 측정하는 행동 특성은 DSM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특성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하며, 무한한 성공과 권력 혹은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자주 사로잡히며,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으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

라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며,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거만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그러나 NPI는 성격장애로서의 자기애보다는 오히려 정상인의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애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즉, NPI는 위에 기술된 자기애의 극단적인 모습보다는 보다 온건한,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자기애 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록 NPI의 제작에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준거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원래의 제작 목적이 비임상 집단의 정상적인 개인차로서의 자기애를 평가하려는 것이었고(Raskin & Terry, 1988), 또한 후속된 타당화 작업들이 주로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Emmons, 1984, 1987; Raskin & Hall, 1979, 1981; Rhodewalt & Morf, 1995).

NPI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는 Emmons(1984, 1987)의 연구와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 이후 NPI 요인과 다른 변인들의 연관성을 본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NPI를 이해하고 이를 연구와 상담 실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mmons(1984, 1987)는 두 번에 걸친 연구에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NPI에서 4개의 서로 관련 있는 주성분을 추출하였다. 그는 451명과 388명의 대학생들에게 NPI를 실시하여 문항간 파이계수(phi coefficient)를 얻어 주성분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얻은 주성분들은 각각 지도력/권위, 자기몰입/자기칭찬, 우월성/거만, 착취성/특권의식으로 명명되었다(부록 1 참조). 그는 NPI의 총점이 아이젠크(Eysenck) 성격차원의 외

향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것과, 자존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하위요인들 중에서 착취성/특권의식은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자존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후 NPI의 제작자인 Raskin과 Terry(1988)는 Emmons(1984, 1987)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 보다 좀 더 많은 요인이 추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Emmons와는 달리 파이계수가 아닌 사분상관(tetrachoric correlation) 행렬을 주성분분석에 투입하여 NPI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018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NPI 자료로부터 모두 7개의 서로 관련 있는 주성분이 추출되었으며, 각각 권위, 과시성, 우월성, 허영심, 착취성, 특권의식, 자기충분성으로 명명되었다(부록 2 참조). 또한 이들은 자기애를 서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신적 행동적 현상들을 기술하는 고차적 구성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NPI가 자기애라는 일반 요인을 측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Raskin & Terry, 1988). (a) 문항간 상관행렬에서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 (b) 회전하지 않은 요인들 중 첫 번째 요인은 두 번째 요인과 비교해서 그 고유치가 상당한 정도로 더 커야 한다. (c) 모든 문항들은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정적인 요인부하량을 가져야 한다. (d) 회전한 후의 요인행렬에서 높은 부적 요인부하량이 있어서는 안 된다. (e) 요인간 상관행렬에서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각 요인은 둘 이상의 다른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가져야 한다.

(f) 요인들의 상관행렬에 대한 고차요인분석에서는 변량을 상당한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회전하지 않은 요인이 추출되어야 하며, 모든 요인이 그 첫 번째 고차요인에 무시할 수 없는 정적 요인부하량을 가져야 한다. Raskin과 Terry(1988)는 자신들의 자료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하고, NPI가 서로 연관된 7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기애라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이 NPI를 번안하여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 중에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도 있고(예컨대 김계령, 1997; 김윤주, 1991), 요인분석을 한 연구들도 있다(예컨대 김은영, 1996; 김지연, 1998; 박정민, 1998; 한수정, 1999). NPI의 문항들은 원래 자기애적인 진술문과, 그것과 내용상 반대되는 진술문을 나란히 쌍으로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요인분석을 실시한 연구들 중에서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사용한 연구는 한수정(1999)의 것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자기애적인 진술문만 제시하여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거나 아예 5점 척도로 수정하여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의 방법론적인 측면을 보면, 요인들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한 것은 박정민(1998)의 연구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NPI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애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온 NPI를 한국의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여 그 요인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위에 언급된 Emmons(1984, 1987)의 연구와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를 비롯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경험적 자료에 고유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전제를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model)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요인분석의 결과로부터, 이 도구가 과연 자기에라는 일반 요인을 측정하는지를 Raskin과 Terry(1988)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NPI의 요인들이 다른 성격 특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서 NPI의 타당도에 관한 자료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기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자존감 척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NPI가 측정하는 것이 적응적/부적응적 성격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놓고 볼 때 NPI의 전체 척도는 외향성 및 자존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정신병적 경향성과의 관계는 연구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Raskin & Hall, 1981)와 없다는 연구 결과(Emmons, 1984)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예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NPI의 요인별 하위 척도 중에는 전체 척도와는 다른 관계 양상을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Emmons(1984, 1987)의 4요인 중 착취/특권의식처럼 특히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는 요인이 있다면, 이 요인은 전체척도와는 달리 신경증적/정신병적 경향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자존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Emmons, 1984; Watson & Bideman, 1993).

## 연구 1 : NPI의 요인구조

### 방 법

#### 1.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 소재 7개 대학에 재학중인 1,200명의 대학생이었다. 이 중 남자는 499명 여자는 70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00세(표준편차 2.88)였다.

#### 2. 도구

##### 자기에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이 검사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이들은 자기에적 성격을 묘사하는 223 문항을 만들어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과 낮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신뢰롭게 나누는 80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를 Form A와 Form B로 나누었다가, 후속 연구에서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이는 54개 문항으로 검사를 축소하였다. 그 후 Raskin과 Terry(1988)는 주성분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하여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의 국내 번안판들 중에서 원형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된 한수정(1999)의 번안판을 사용하였다. Raskin과 Terry(1988)는 내적 합치도를 .83으로 보고하였고, 한수정(1999)은 번안된 검사가 .85의 내적 합치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40 문항으로 된 전체 NPI의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자기에 성향을 나타내는 문장과 그에 반대되는 문장을 나란히 제시하고 둘 중

의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예컨대,

A.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B.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문항에서 A를 선택한 피험자에게는 1점을, B를 선택한 피험자에게는 0점을 부여하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다 합하여 자기애 총점을 구하게 된다.

### 3. 절차 및 분석방법

1,200명의 피험자들에게 NPI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로부터 먼저 모든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였으며, 상관이 낮게 나온 문항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런 다음에 문항들간의 사분상관(tetrachoric correlation) 계수의 행렬을 구하여 이를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Browne, Cudeck, Tateneni 및 Mels (1999)가 개발한 CEFA(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피험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요인분석하기 전에 먼저 NPI의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였다. 이 때 각 문항이 연속과정을 가진 이분변인(즉, 원래 연속변인인 것을 인위적으로 있다/없다로 구분한 이분변인)이므로 피어슨 상관계수 대신 이연상관(biserial correlation) 계수를 구하였다. 여기서 총점과의 교정된 상관계수가 .20 이

하인 문항은 두 개(22, 24번)였으며,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 두 개를 제외한 38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간 상관계수 행렬을 구할 때는 인위적인 이분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어슨 상관계수 혹은 파이계수(phi coefficient) 대신 각 문항들간의 사분상관계수 행렬을 구하였다. 만약 이 때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한다면 실제보다 많은 요인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이 요인들 중에는 문항의 난이도와 같은, 실제 자료의 내용과는 무관한 요인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순목, 1995). 이 사분상관계수 행렬로부터 요인을 추출할 때는 OLS (Ordinary Least Squares, Jöreskog, 1977; Browne, et al, 1999에서 재인용)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3개에서 10개까지 다양하게 탐색적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요인의 회전은 각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도록 하였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의 해석가능성 이외에도, Raskin과 Terry(1988)의 요인 선정 기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들은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조건 이외에도 각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문항이 적어도 3개는 포함될 것을 요구하였다.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의 수가 5개 이상이면 해당 문항수가 3, 4개 이하인 요인이 많이 추출되면서 해석이 곤란하고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요인의 수는 3개 혹은 4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요인을 가능한 한 많이 추출하는 것이 설명 변량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애의 특성을 보다 다양한

표 1. NPI 문항의 요인부하량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FUF
10	나 자신을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79	.14	-.05	-.04	.67
1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72	-.11	.15	.08	.61
11	나는 자기주장을 잘 한다.	.64	-.05	.03	.07	.52
3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는 편이다.	.46	-.09	.15	.09	.44
36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45	.11	.13	-.01	.51
13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44	.19	.11	-.04	.54
5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43	.20	-.06	.02	.45
21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2	-.12	-.09	.17	.27
31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	.38	-.04	-.10	.27	.33
6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33	.23	.12	.03	.52
27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11	.72	.09	-.00	.68
33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52	.54	.02	-.12	.76
32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33	.52	.09	-.02	.69
25	나는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04	.50	-.05	.16	.38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40	.50	.04	-.07	.67
18	나는 세상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무언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다.	.02	.50	.05	.30	.56
8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08	.44	.08	.23	.55
7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21	.39	.31	-.02	.64
14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09	.38	.03	.01	.23
29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12	-.09	.65	.07	.30
28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10	.06	.61	.09	.41
15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01	.05	.59	.13	.48
30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16	.31	.54	-.08	.67
26	나는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한다.	.19	.01	.50	-.18	.38
38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에 주목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11	.35	.48	.08	.52
4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6	-.03	.46	-.09	.43
19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12	-.15	.45	.25	.39
20	나는 기회가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06	.21	.37	-.05	.42
40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09	.12	.17	.71	.62
9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4	.11	.16	.67	.63
39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07	.15	.07	.52	.47
34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24	.30	-.10	.39	.54
고유치(eigenvalue)		3.68	2.97	2.78	1.86	9.30

주. N=1,200. NPI의 각 문항쌍(forced-choice dyads) 중에서 자기애적인 반응만 제시됨. 요인1 = 리더십/자신감, 요인2 = 권위주의/특권의식, 요인3 = 과시/칭찬욕구, 요인4 = 우월의식. FUF = first unrotated factor.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요인의 수는 3개보다는 4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sup>1)</sup> 요인의 수를 4개로 볼 때 어느 요인에도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지 못하는 문항이 모두 6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32개 문항만으로 재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회전하지 않은 4개 요인의 고유치는 크기 순서대로 각각 9.3, 2.5, 1.9, 1.8이었으며 전체 변량의 약 48.44%를 설명하였다. 사각 회전을 한 이후의 각 요인의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4개 요인의 고유치의 총합은 11.29였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약 35.28%에 해당되었다.

이 분석에 사용된 사분상관계수 행렬에서는 -.075가 가장 큰 부적 상관계수였으며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의 고유치( $\lambda_1 = 9.3$ )가 그 다음으로 큰 요인의 고유치( $\lambda_2 = 2.5$ )의 약 3.7배에 달하였으며,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들이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에 높은 정적인 요인부하량을 나타내 보였다. 그리고 표 3의 회전한 후의 요인행렬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이 가장 큰 부적 요인부하량으로,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부적 요인부하량이 전혀 없거나 아주 미미함을 볼 수 있었다.

각 요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요인1에 속한 문항들은 리더십, 주도성, 주장성, 자신감을 보여주는 문항들로서, Emmons(1997)의 리더십/권위와 우월성/거만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

었고, Raskin과 Terry(1988)의 권위와 자기충분성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요인1을 리더십/자신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문항의 내용상 권력추구성,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 특권의식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Emmons의 착취/특권의식과 리더십/권위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이 많았고, Raskin과 Terry의 특권의식과 권위 요인에 소속되는 문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요인2는 권력욕구/특권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자신의 모습이나 능력을 과시하여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 Emmons의 자기몰입 요인, Raskin과 Terry의 과시, 허영심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요인3은 과시/칭찬욕구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요인4에 속한 문항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다는 우월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Emmons의 자기몰입 요인과 Raskin과 Terry의 우월성 및 자기충분성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이었다. 요인4는 우월의식으로 명명되었다. 4요인 32문항의 점수와 40문항으로 된 원척도 점수의 상관은  $r = .98(p < .001)$ 로 높게 나타났다.

NPI에 이들 상호연관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적인 일반 요인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표 2의 요인간 상관행

표 2. NPI의 요인간 상관계수행렬

요인	1	2	3	4
1	1.00			
2	.32	1.00		
3	.30	.34	1.00	
4	.31	.20	.16	1.00

주. 1 = 리더십/자신감, 2 = 권력욕구/특권의식, 3 = 과시/칭찬욕구, 4 = 우월의식.

1)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였더니, 요인을 4개로 지정한 경우(표 1 참조)에 추출된 요인1과 요인4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요인2와 요인3은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한 경우와 정확하게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표 3. NPI 전체척도(32문항)와 하위척도들의 상호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척도	1	2	3	4	전체척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alpha$
1	1.00					10	3.62	2.36	.70
2	.49**	1.00				9	3.85	2.40	.73
3	.34**	.45**	1.00			9	4.10	2.23	.68
4	.41**	.42**	.31**	1.00		4	.97	1.16	.65
전체척도	.78**	.82**	.73**	.62**	1.00	32	12.55	6.16	.85

주. N = 1,200. 하위척도 1 = 리더십/자신감, 2 = 권력욕구/특권의식, 3 = 과시/칭찬욕구, 4 = 우월의식.  
 \*\* p<.001

렬을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이 전체변량의 약 45%를 설명하였으며, 이 고차요인에 대한 일차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62, .56, .51, .4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3에 제시된 하위척도간 상관행렬도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변량의 약 55%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 대한 하위척도들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65, .76, .57, .57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3에는 또한 1,200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얻은, 32문항으로 된 NPI 전체척도 및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내적합치도( $\alpha$ ) 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5,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65~.73의 범위에 있었다. 이는 Emmons(1987) 하위척도들의 .68~.87 보다는 약간 낮고, Raskin과 Terry(1988) 하위척도들의 .50~.73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였다.

한편, 전체척도와 하위척도들에서 성별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있는 지 알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척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t=1.10, p>.05$ ), 하위척

도들에서는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자신감 하위척도( $t=2.58, p<.01$ ), 권력욕구/특권의식 하위척도( $t=2.06, p<.05$ ) 및 우월의식 하위척도( $t=5.14, p<.01$ )에서는 남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과시/칭찬욕구 하위척도( $t=-4.57, p<.01$ )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계수로 보자면, 성별이 전체척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r=.03$ ), 리더십/자신감 하위척도와는 .07, 권력욕구/특권의식 하위척도와는 .06, 과시/칭찬욕구와는 .13, 우월의식과는 .15의 유의하지만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연구 2 : NPI요인과 자존감 및 아이젠크 성격차원의 관계

### 방 법

#### 1. 피험자

피험자는 연구 1의 피험자 중 수도권 소재 3개



대학에 재학중인 496(남자 95, 여자 401)명의 대학생들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56세(표준편차 2.65)였다.

## 2. 도구

### 1)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 2)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존감 척도를 원호택과 이훈진(1995)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자존감이 자신감과 자기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제작되었다.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원호택과 이훈진(199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alpha$ )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 3)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이 검사는 Eysenck Personality Scale(Eysenck & Eysenck, 1991)을 이현수(1997)가 우리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여러 하위 척도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및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을 측정하는 단축형 검사(각각 12문항)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에서 피험자들은 제시된 진술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현수(1997)는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 $\alpha$ )를 정신병적 경향성 .64, 신경증적 경향성 .78, 외향성-내향성 .7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

증적 경향성 척도에서 .79, 외향성-내향성에서 .83의 내적 합치도를 얻었다. 그러나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에서는 내적합치도가 .51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각 문항의 총점과의 상관을 검토하여 영(0)에 가까운 상관을 보이는 2개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내적 합치도 자수가  $\alpha = .60$ 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두 문항이 줄어든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는 기존 척도와는  $\gamma = .94$  ( $p < .001$ )의 상관을 보였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 축소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 3. 절차 및 분석방법

496명의 피험자들에게 NPI에 더하여 아이젠크 성격검사와 자존감 척도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NPI 총점 및 요인별 하위척도의 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 척도 점수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요인과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변인들의 효과를 상호통제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표 4에 NPI 전체척도와 하위척도들, 그리고 자존감 척도와 아이젠크 척도들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PI 전체척도는 자존감( $r = .44$ ,  $p < .001$ ) 및 외향성( $r = .49$ ,  $p < .001$ )과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NPI에서

표 4. NPI 전체척도(32문항), 하위척도들, 자존감 척도, 아이젠크 척도들간의 상관계수

척도	NPI	1	2	3	4	자존감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
NPI	1.00								
1	.79**	1.00							
2	.82**	.52**	1.00						
3	.72**	.36**	.42**	1.00					
4	.63**	.42**	.44**	.33**	1.00				
자존감	.44**	.51**	.16**	.35**	.33**	1.00			
외향성	.49**	.52**	.33**	.36**	.20**	.40**	1.00		
신경증적 경향성	-.07	-.27**	.15**	-.05	-.04	-.49**	-.33**	1.00	
정신병적 경향성	.00	-.00	-.02	-.00	.07	-.01	.03	-.01	1.00

주. N = 496. 하위척도 1 = 리더십/자신감, 2 = 권력욕구/특권의식, 3 = 과시/칭찬욕구, 4 = 우월의식.  
\*\*p < .001

높은 점수를 얻은 피험자는 자존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더 외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NPI 전체척도와 자존감 및 외향성과의 이러한 관계는 하위척도들에서도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관련성에서는 하위척도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리더십/자신감 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 간에는 부적적인 상관( $r = -.27, p < .001$ )이 있었으나, 권력욕구/특권의식 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간에는 반대로 정적인 상관( $r = .15, p < .001$ )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력욕구/특권의식 척도가 자기애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부적응적인 속성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하위척도들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으므로 한 하위척도가 중요한 측정치들과 맺는 관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하위척도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Watson & Biderman, 1993). 이에 따라 4개의 하위척도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존감,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렇게 독립변인간 상호영향을 통제하였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존감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표 5.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인 =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변인	회귀계수( $\beta$ )	$t$	유의도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리더십/자신감	-.46	-9.20	<.01	-.27	-.37
권력욕구/특권의식	.42	8.15	<.01	.15	.33
과시/칭찬욕구	-.06	-1.34	.18	-.05	-.05
우월의식	-.01	-.17	.87	-.04	-.01

표 6.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인 = 자존감 척도)

변 인	회귀계수( $\beta$ )	t	유의도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리더십/자신감	.49	10.91	<.01	.51	.40
권력욕구/특권의식	-.26	-5.53	<.01	.16	-.20
과시/칭찬욕구	.22	5.40	<.01	.35	.20
우월의식	.16	3.77	<.01	.33	.14

주목할만한 변화가 생겼다.

영차상관(zero-order correlation)은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종속변인과의 단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준부분상관(semipartial correlation)은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권력욕구/특권의식 척도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통제된 다음에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관계가 한층 더 강하여졌다(표 5). 또한, 다른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이전에는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통제 이후에는 반대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표 6).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측정하는 검사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NPI를 한국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그 요인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200명의 대학생에게 자기애적 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문항들의 사분상관(tetrachoric correlation) 행렬을 구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4요인이 추출되었다. NPI의 4요인은 각각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Raskin과

Terry(1988)의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모두 만족 시킴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에 대한 고차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이 4개 요인의 배후에 하나의 일반요인이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즉, 요인간 상관행렬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이 전체변량의 약 45%를 설명하였고 이 고차요인에 대한 일차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62, .56, .51, .41로 높게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또한 하위척도간 상관행렬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도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변량의 약 55%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 대한 하위척도들의 요인부하량이 각각 .65, .76, .57, .57로 역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차 요인분석의 결과는 '자기애'라고 하는 일반요인이 NPI의 각 하위척도들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NPI의 여러 문항들이 '자기애'라고 하는 일반적 구성개념의 심리적, 행동적 현상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4요인 32문항의 점수와 40문항으로된 원척도 점수의 상관은  $r=.98(p<.001)$ 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32 문항 전체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5,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65~.73의 범위에 있었다. 이는 Emmons(1987) 하위척도들의 .68~.87 보다는 약

간 낮고, Raskin과 Terry(1988) 하위척도들의 .50~.73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였다. 이것은 각 하위척도의 문항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로부터 이 32문항으로 된 NPI가 우리나라의 일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애 측정도구로서 일단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4개 요인과 32개의 문항이 자기애의 복잡한 개념을 모두 담고 있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고, 하위척도들의 신뢰도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높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애와 관련된 다른 심리적, 행동적 특성들을 반영하는 문항이 NPI에 더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시사되었다.

1,200명의 피험자 중 496명에게 자존감 척도 및 아이젠크 성격검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들 검사와 NPI의 각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NPI의 요인들 중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은 다른 요인들이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에 반해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자존감 척도와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이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에서 다른 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에는 부적응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게 부각됨을 볼 수 있었다. 즉,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상관이 더 높아졌고 자존감과는 정적인 상관 대신 부적인 상관을 보였던 것이다.

NPI로 측정되는 자기애는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이 자기애의 특성과 그 기능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도 모른다. Watson과 Biderman(1993)은 Emmons(1984, 1987)의 NPI 4개 요인 중 착취/특권의식이 가장 병리적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이 요인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보면 영차상관

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지만, 다른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뒤에는 정적인 상관이 드러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 중에는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이 특히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지는 자기애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NPI의 요인들이 자존감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주 발견되었다(Emmons, 1984; Raskin, Novacek, & Hogan, 1991a, 1991b; Watson & Biderman, 1993; Watson, Taylor, & Morris, 1987). 그러므로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외현적으로는 더 안정되고 자존감도 높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애는 부분적으로는 손상되고 약해진 자기표상을 복구하려는 방어적 시도의 산물로 볼 수 있으므로(Kernberg, 1975; Kohut, 1971, 1977), 자기애와 자존감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Raskin, Novacek과 Hogan(1991a, 1991b)은 자기애가 자존감을 조절하려는 일차적 방략 중 하나이며 방어적 자존감 및 비방어적 자존감 모두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권위, 자기충분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비방어적인 자존감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기애라고 하는 일반 개념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되는 다양한 자기애 하위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내담자 집단 등 여러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판 NPI의 요인구조를 분명히 밝히고 또한 적절한 문항들을 개발하여 보충한다면 이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자기애 검사도구를 얻을 수 있을 때, 국내에서도 자기애의 여러 요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좀 더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령 (1997). 자기애적 성격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 (1996). 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1998). 자기애적 성격 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민 (1998).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원호택, 이훈진 (1995). 편집증적 경향성,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집(pp. 277-290).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이현수 (1997).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Browne, M. W., Cudeck, R., Tateneni, K., & Mels, G. (1999). *CEFA: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 1.03)*. Unpublished manuscript, The Ohio State University.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dder & Stoughton.
- Jöreskog, K. G. (1977). Factor analysis by least squares and maximum likelihood methods. In K. Enslein, R. ralston and S. W. Wilf(Eds.), *Statistical methods for digital computers*, Vol. 3, pp. 125-153. New York: Wiley.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orey, L. C., Waugh, M. H., & Blashfield, R. K. (1985). MMPI scales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a).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20-38.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b).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11-918.
- Rhodewalt, F., & Mort,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tson, P. J., & Biderman, M. D. (1993).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s, splitting,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41-57.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5). Narcissism. In C. G. Costello (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pp.146-172). New York: Wiley.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Nam-Woo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this articl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was examined. A sample of university undergraduates (N=1,200) was used for this purpose of the study. Using factor analysis, I analyzed the tetrachoric correlations among the NPI item responses and found evidence for a general construct of narcissism as well as four first-order factors: Leadership/Self-Confidence, Need for Power/Entitlement, Need for Admiration/Exhibitionism, and Superiority. Controlling for the other three subscales caused the Need for Power/Entitlement subscale to correlate more positively with neuroticism and negatively with self-esteem.

*Key Words* : narcissism,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self-esteem.

부록 1. Emmons(1987)의 NPI 요인과 문항내용

요 인	문 항
리더십 / 권위	나 자신을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이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몰입 /자기칭찬	나는 자기주장을 잘 한다.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우월성 / 거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보통 어떤 대화든지 내가 주도한다.
	나는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믿게 할 수 있다.
착취성 /특권의식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다.
	나는 기회가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우수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착취성 /특권의식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운에 시기심이 든다.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나는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에 주목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착취성 /특권의식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출처: Emmons(1987), p.13.



## 부록 2. Raskin과 Terry(1988)의 NPI 요인과 문항내용

요 인	문 항
권위	<p>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 자신을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나는 자기주장을 잘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p>
자기충분성	<p>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존하는 일이 거의 없다.  나는 내 책임 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p>
우월성	<p>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훗날 누군가가 내 자서전을 써주었으면 좋겠다.</p>
과시	<p>나는 기회가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결혼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에 주목해주시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는 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p>
착취성	<p>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다.  나는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믿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누구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p>
허영심	<p>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p>
특권의식	<p>나는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  나는 세상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무언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p>

출처: Raskin &amp; Terry(1988), p.894.